

식품포장과 자동화관련 출품 다수

— 94 동경국제포장전 참관기

이선구/삼흥산업(주) 영업부 과장

일본 포장기술협회(JPI)가 격년제로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포장전인 동경팩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일본 최대의 전시장인 동경 하루미의 국제전본시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처음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필자는 선진포장기술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과 동시에 능숙치 못한 일본어에 우려감을 갖고 전시개최일 하루 전에 동경 나리타공항에 도착하였다.

현지 안내원의 도움으로 동경근처에 있는 유명하다는 쇼핑몰에 들러 현지 포장디자인 및 수준을 둘러보며 관심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구입하고 숙소에서 여장을 풀 후, 그 날은 동행인들과 얼굴을 익히며 한국의 포장기술, 인쇄기술, 포장재료의 수준 등을 논하며 보냈다.

참가전 짜여진 일정대로 전시 첫날은 일본 거래회사 직원의 안내로 하루미 전시장에 도착하였다. 넓은 주차장을 제외하곤 한국과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고 들어선 전시장은 안내판에 9개 전시건물 배치도와 출품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전시관의 출품분류를 보면 포장재료(Packaging Materials), 포장기계(Packaging Machinery), 포제가공기계(Converting Machinery) 및 포장 관련기계(Packaging Related Machinery) 등 5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었다.

400여 회사가 3,200개의 부스를 형성하고 개별 출품업체마다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작동시험이나 성능시험을 통해 관람자의 이해를 도우며 설명하고 있었다. 또 각 출품업체 부스마다 고객상담실을 운영하며 보다 더 자세한 기기설명 및 제품구매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필자를 비롯 많은 한국 관람객들은 그러한 기회를 적절히 이용치 못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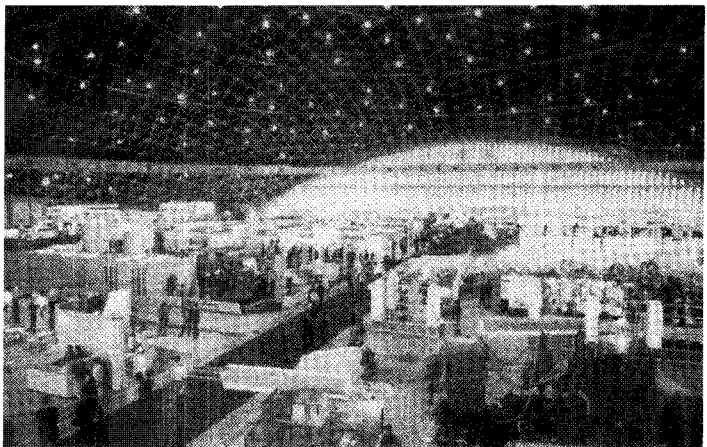
한국 포장재 메이커 직원들의 깊은 관심을 끈 포장재료 전시관에는 Paper Board, Corrugated Board, Plastics, Cushioning Material, Tape, String and Strip, Label 등의 재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포장재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필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만, 대체로 두

렵한 경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포장재의 연구개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의 관심분야인 포장색상 및 디자인의 수준과 흐름을 포장재와 포장기계 회사들이 전시한 샘플들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색상은 한국보다 선명하고 화려해 보였으며, 디자인은 소비층에 따라 현실적이고 입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우유팩 디자인은 아이들과 이야기라도 하는 듯한 동물들의 아기자기한 모습과 순수하고 밝은 색상이 인상적이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이 전시회의 특징은 식품 및 식품포장 가공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락문화가 발달해서인지 일회용 식품포장이 많이 전시되어



94동경국제포장전은 포장재료, 포장기계, 포장가공기계 및 관련기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모두 400여 업체가 3,200부스를 형성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있었다.

또한 진공압축 포장기도 무척 발달하여 무엇이든지 아주 손쉽게 압축포장됨을 볼 수 있었다.

전시된 대부분의 기계들은 컴퓨터에 의해 거의 무인자동화되어가는 경향이며, 정밀하고 균일된 제품생산은 물론이고 불량률도 감소되어 생산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기계값이 비싸 한국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며, 한국의 높은 인건비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국도 포장기계의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 및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생각해 보았다.

동경팩 전시회에서 벗어나 동경에서 한 시간쯤 북쪽으로 이동하여 방문한 곳은 한국 인쇄업체에 많이 알려진 태양전기주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그라비아 인쇄기의 Color Controller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첫 인상으로 깨끗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장의 회사 소개를 받은 뒤 현장을 방문한 필자는 그곳 기술담당자로부터 최근에 개발한 제품에 대해 구 모델과 비교하여 장점 등을 소개 받으면서 뇌리에 스쳤던 것은 한국의 어떤 회사가 이 회사의 구모델을 최근에 국산화하였는데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약 30분간 현장을 둘러보며 일하



일본사회의 도시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음을 반영하듯이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일회용 식품포장이 많이 눈에 띄었다.

는 사람들의 자세를 관찰해 보면 일본의 중소기업은 3D현상으로 고전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사정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각자의 일에 관한 한 전문가인 듯한 인상이었다.

짧은 전시참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동행인들의 모습은 꽤 피로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선진포장기술을 보았다는 뿌듯함과 각자의 회사에 돌아가 보고 느낀 점을 한국포장기술에 응용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